KWC 2022 수상 와인 릴레이

이탈리아 II

와인의 역사에 관한 한 이탈리아는 어느 나라보다 긴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국토의 전역에서 와인이 생산되는 몇 안 되는 나라다. 특히 토착 포도 품종, 떼루아, 지방별 스타일이 가장 다양한 나라이다. KWC2022에서 이탈리아는 전체 메달 획득 수로는 3위, Gold 메달 수에서도 3위를 차지하며 탄탄한 저력을 과시했다. 지난 호에 이어, 이탈리아의 주요 생산 지역과 지역별 해당 와이너리의 수상 와인들을 알아본다

글 이은솔 사진 및 자료 제공 장영수, 이은솔, 와인리뷰 편집팀, 각 수입사

주요 와인 산지

사르데냐 Sardegna

이탈리아 반도의 서쪽 지중해에 위치한 섬 사르데냐는 지중해 전체에서 시칠리아 다음으로 큰 섬으로, 어린 시절 나폴레옹이 살았던 코르시카 섬과도 가깝다. 수세기에 걸쳐 페니키아인, 그리스인, 카르타고인 등 다양한 인종이 살았으며, 누라게(Nuraghe) 문명 때부터 포도나무를 심고 와인을 빚었다고 한다. 고대 문영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원시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한 섬이라고 할 수 있다. 무덥고 척박한 땅은 포도나무와 올리브를 재배하기에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수많은 이민족들의 침입을 겪은 사르데냐는 1420년 스페인 아라곤 왕국의 침략 때 다양한 포도 품종들이 스페인에서 유입되었고, 그 당시의 여러 품종들이 토착화되었다. 이 지역에서 레드 와인 품종으로는 깐노나우(Cannonau)와 까리냥(Carignan)이 유명하고, 질 좋은 화이트 와인 품종으로는 사르데냐 지역 첫 번째 DOCG인 베르멘티도 디 갈루라(Vermentino di Gallura)를 꼽을 수 있다.

고대 문명이 남아있는 사르데냐 모레스의 고인돌

시칠리아 Sicilia

지중해에서 가장 큰 섬인 시칠리아는 다양한 토착 품종을 가지고 있으며, 이탈리아 전체 와인 생산량의 1/6을 차지하는 주요 와인 산지이다. 제주도의 14배 면적으로 그 크기만큼 역사적으로도 할 이야기가 많은 곳이다. "시칠리아를 가보지 않고 이탈리아를 본 것은 이탈리아를 전혀 보지 않은 것이다. 시칠리아는 모든 것의 단서이기 때문이다" - 요한 볼프강 폰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1832)의 말처럼 시칠리아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가 가장 번성했던 시절의 다양한 문화와 문명들이 남아있는 그 자체가 박물관 같은 섬이다. 유럽에서 해안에 포도밭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 중에는 이곳이 일조량이 가장 높으며, 지중해의 영향으로 온난한 기후를 보인다. 뿐만 아니라, 용암, 석회질, 점토질 등 다양한 토양을 가진 천혜의 와인 지역이다. 이곳은 레드 와인보다 화이트 와인용 포도를 훨씬 더 많이 재배하며, 특히 화이트 와인 품종인 까따라또(Catarratto)가 아주 광범위하게 심어져 있다. 시칠리아의 명성을 주도하는 레드 와인들은 대부분 네로 다볼라(Nero d'Avola)를 주종으로 만들어지며, DOCG 쎄라주올로 디 비또리아(Cerasuolo di Vittoria)가 특히 유명하다.

에트나 화산 폭팔

토스카나 Toscana

토스카나라는 지명은 BC 1000년 경 이곳에 정착한 에트루리아 인으로부터 유래되었다. 이탈리아 중서부에 위치한 토스카나 지방은 북부의 피에몬테 지방과 더불어 이탈리아 최고의 명주가 나는 지역이다. 토스카나의 스타 품종이 산지오베제(Sangiovese)라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대부분의 이탈리아인들은 끼안띠(Chianti)를 산지오베제라는 품종을 가장 잘 보여주는 쇼윈도우라고 생각한다. 또한 산지오베제는 이탈리아 전역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레드 와인 품종이기도 하다. 한때 끼안띠의 품질을 저급하게 여기는 시대가 있었지만, 값싼 화이트 와인 품종의 블렌딩을 금지시키면서 끼안띠 와인의 초점을 다시 '산지오베제의 개성'으로 옮기는 계기를 만들었다. 산지오베제로 만든 가장 고급스러운 와인으로 인정 받는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는 와인의 거친 산도를 다듬고 풍성한 웅장함을 보이기 위해 긴 숙성 기간을 거치는 것으로 유명하다. 토착 품종를 재료로 오랜 양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지방의 아이러니는, 볼게리(Bolgeri) 지역의 '보르도 블렌딩'이 현재 토스카나에서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수퍼 투스칸으로 불리는 이 고급 와인은 세계 최상급 와인들과 경쟁하고 있으며, 가장 오래된 와인 산지의 재발견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전형적인 토스카나 시골. 엠폴리의 끼안티 포도밭

움브리아 Umbria

이탈리아 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움브리아 지방은 산과 강, 그리고 구릉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해안선이 없는 곳이어서, 우리나라의 충북 지방과 비슷한 입지를 보인다. 주목할만한 화이트 와인은 탄산 석회와 화산토가 섞여 있는 토양에서 자란 트레비아노(Trebbiano) 품종으로 빚은 DOC 오르비에또(Orvieto)로서, 장기 숙성할 수 있는 품질을 갖추고 있다. 레드 와인으로는 몬테팔코 지역의 사그란티노 품종으로는 빚은 DOCG 사그란티노(Sagrantino di Montefalco)를 꼽을 수 있다. 산지오베제 품종을 사용하는 DOCG 토르지아노(Torgiano)는 긴 여운을 특징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

움브리아 시골 전경

베네토 Veneto

수세기 동안 베네치아 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했던 베네토는 이탈리아 북동부에 위치한다. 물의 도시 베니스와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알려진 베로나가 있는 베네토 지방은 이탈리아 와인 생산의 원동력이다. 생산량으로 이탈리아 최대이며, 그만큼 DOC급 와인을 만드는 생산자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베네토 지방은 화이트 품종이 전체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토종 화이트 품종인 글레라(Glera)와 가르가네가(Garganega)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글레라는 프랑스 샴페인 생산량의 두 배에 달하는 프로쎄코를 만드는 주요 재료이며, 가르가네가는 드라이하고 크리스피한 화이트 와인인 쏘아베(Soave)의 주재료이다. 발폴리첼라(Valpolicella)는 베네토를 대표하는 레드 와인 지역이다. 이곳에서는 수확된 포도를 몇 달 동안 바람으로 천천히 말리는 아빠씨멘또(Appassimento) 방식을 사용하여 세계적으로 명성 있는 아마로네를 만든다. 포도가 건조될수록 당분, 산도, 향기도 모두 농축되는데, 당분을 남긴 채로 발효를 중단시키면 아주 단 맛을 내는 레씨오토(Recioto)가 되고, 드라이한 스타일로 만들면 16%까지 알코올이 올라가는 아마로네(Amarone)가 된다.

리치오토의 어느 포도밭

수상 와이너리

Villa Mangiacane

빌라 만지아카네는 키안티 클라시코의 와인 양조 지역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와이너리다. 피렌체에서 남쪽으로 불과 12km 떨어진 곳에 600ac의 포도밭과 올리브나무가 무성한 곳이며, 르네상스의 거장 미켈란젤로의 손을 거쳐 마키아벨리 가문이 지은 웅장한 15세기 건물로 지어져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저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도 만지아카네에서 탄생하였다. 역사와 예술의 공존하는 이곳은 키안티 클라시코의 전통을 이어가며 개성 있는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수입사 KS와인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Mangiacane Aleah IGT Toscana
SILVER Mangiacane Chianti Classico Riserva DOCG

빌라 만지아카네의 와이너리

Vitis Nostra

비티스 노스트는 1986년에 설립되어 전 세계적으로 생산량의 80%가 수출되는 이탈리아 와인의 선두주자 에노이탈리아(Enoitalia)그룹 소유의 와이너리이다. 이탈리아 남부를 표현한 우아한 와인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을 만큼 이탈리아의 북쪽, 남쪽에서부터 풍부하고 강건한 뿔리아의 전통적인 스타일 추구하는 와이너리이다. 비티스 노스트라의 비티스는 '비티스 비니페라'(전통적으로 와인생산에 사용되는 포도품종)에서 따왔으며 Nostra는 이탈리아어로 '우리'를 뜻한다.
수입사 바쿠스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Vitis Nostra Negroamaro Salento

비티스 노스트의 포도밭

Lornano

로르나노는 키안티 클라시코 남서쪽 카스텔리나 인 키안티(Castellina in Chianti) 지역에 있다. 1904년 포졸리(Pozzoli) 가문에 소유가 된 이래 4대째 가족 경영을 이어 오고 있는 유서 깊은 와이너리이다. 포도밭이 위치 하는 카스텔리나 남서쪽의 모래, 점토, 석회 등 다양한 토양이 뒤섞인 해발 350m 언덕에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온화한 기후에 고품질 포도를 얻기에 좋은 환경이다. 산지오 베제를 중심으로 와인을 생산하고 있으며 최상의 와인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가능농법(sustainable viticulture)을 적용해 포도 재배와 양조기술을 연구하며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있다. 토스카나 최고의 와인메이커 중 하나인 프랑코 베르나베이(Franco Bernabei)가 합류한 이래 양조 과정을 총 지휘하고 있으며 와인의 품질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려놓았다. **수입사** 레뱅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Chianti Classico Riserva Le Bandite
SILVER Chianti Classico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 로르나노의 직원들

Vigneti Del Salento

이탈리아 남부 뿔리아 지방의 살렌토 반도에 자리한 비네티 델 살렌토 와이너리는 최상의 프리미티보를 생산하는 곳이다. 판티니 그룹의 총괄 와인메이커인 필리포 바칼라(Filippo Baccalaro)와 전문가들이 10년 이상 뿔리아 지역을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따뜻한 남부 햇빛은 포도가 적당히 당분을 머금게 하고, 온화한 일교차와 바다에서 불어오는 미풍이 포도의 향을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최적의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다. 대부분 심층의 석회암이 부서지면서 생긴 밝은 갈색 토양은 철분이 풍부하며, 배수가 좋아 품질 좋은 포도 재배에 적합한 곳이다. 필리포 바칼라로의 연구를 바탕으로 포도가 지닌 최상의 상태를 표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양조 기술을 적용해 와인을 만들고 있다.
수입사 와이넬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Vigneti del Salento Leggenda Gold
BRONZE Vigneti del Salento Zolla Primitivo di Manduria

판티니 그룹의 뿔리아 포도밭 전경

Tenuta Alzatura

총 Monterone, San Marco, Alzatura 3개의 포도원을 보유하고 있는 테누타 알자투라 와이너리는 체끼(Cecchi) 가문이 1992년 DOCG 승인된 움브리아에 있는 사그란티노 디 몬테팔코(Sagrantino di Montefalco) 지역에 투자하기 위해 처음 설립된 와이너리 이다. 사그란티노 포도 품종에 특화된 곳이며, 이 지역 떼루아의 독특한 표현력을 담고자 노력하고 있다. 껍질이 두꺼운 사그란티노 포도로 만들기 때문에 집중도가 높고 탄닌이 많은 훌륭한 풀바디 와인이 된다. 석회암이 있는 점토질 토양에서 재배되어 훌륭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며 완만한 언덕과 유기농 농업 그리고 여러 세대에 걸쳐 형성된 문화가 결합되어 개성이 강한 와인이 계속해서 생산되고 있다. **수입사** BK트레이딩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Tenuta Alzatura Montefalco Rosso

테누타 알자투라 와이너리 전경

Marchesi De' Cordano

마르께시 데 코르다노 와이너리는 이탈리아 중부 아브루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로 유명한 고대 '로레토 아프루티노' 마을로 둘러싸인 지역에 위치해 있다. 지중해를 담은 와인은 언덕에서 해안으로 흐르는 해류의 영향을 고루 받은 독특한 떼루아로 풍부한 미네랄리티, 스모키한 풍미가 특징이다. '연구 개발', '전통', '지속성' 이 세가지는 '마르께시 데 코르다노' 철학의 키워드이며 와인메이커와 농부가 함께 만들어 오래도록 굳건히 지켜온 도노프리오 패밀리의 정신이다. 현재의 오너인 프란체스코 도노프리오는 와이너리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로레토 아프루티노의 땅에 대한 소명 의식에 그 자신의 열의와 용기, 혁신을 더했다.

수입사 비노킴스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Aida Montepulciano d'Abruzzo DOP

마르께시 데 코르다노의 포도원 초입

Carpenè Malvolti

1868년 설립된 카르페네 말볼티 와이너리는 1877년 이탈리아 최초의 양조 학교가 들어선 곳이다. 5대째 가족 경영으로 운영 되고 있다. 세계 최초로 프로세코 스파클링을 생산한 와이너리기도 하며, 프로세코를 검색했을 때 위키피디아에 등장하는 단 한병의 프로세코 사진이 까르페네 말볼티일만큼 스파클링 와인을 전세계에 알리는데 기여하였다. 현재 카르페니 가문의 5세대인 로잔나 카르페니 (Rosanna Carpenè)에 의해 이어져 오고 있으며, 전 세계 60개국 이상에서 프로세코, 브랜디, 그라빠, 로제 스파클링 와인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수입사** 인터리커 주식회사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Carpenè Malvolti 1868 Prosecco Treviso DOCG

BRONZE Cecchi Vino Nobile Di Montepulciano

1968년 카르페네 말볼티의
그라파 프로세코 리제르바 광고 표지